



〈A Space odyssey〉 서울제물포로지하화 현장

ZOOM IN + H

PHOTO EXHIBITION



사진전 현장 영상 보기

당신의 열정은 몇 °C입니까?

An eye-catching photo exhibition was held on the first floor of Hyundai E&C's headquarters between January 13 and 17. The passion-themed exhibition was designed to celebrate the New Year and give a warm support to the builder's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The photo exhibition, titled *Construction is Passion: Hyundai life, Constructive People*, depicts the boundless imagination and the challenging spirit and passion peculiar to Hyundai E&C. The feelings involved in strong fellowship and lively construction sites were perfectly captured by the photos taken at six construction sites including the Seoul-Jemulpo Tunnel, Hillstate Shinchon, Gimpo Gochon Logistics Facility, and Busan New Port's West Container Terminal. [▶ Continued on page 4, 5](#)

서울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1층.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전이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열정'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임직원의 힘찬 새해 첫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건설 is 열정: 현대적인 삶, 건설적인 사람'展은 건설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과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풀어냈다. 이번 아트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래퍼 키썬과의 '건설 is Challenge'에 이어 현대건설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Artist Collaboration)으로, 공간사진작가 이원석과 함께했다. '서울제물포로지하화' '힐스테이트 신촌' '김포고촌 물류시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등 6개 현장에서 촬영한 작품은 '끈끈한 동료애'와 '생생한 현장감'을 온전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향후 작품들은 서울 도곡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갤러리'로 자리를 옮겨 상시 전시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4, 5면](#)

Take off toward global top-tier builder

Hyundai E&C wins orders worth 2.1 trillion won overseas in January

Amid the tough business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yundai E&C has solidified its global top-tier position based on solid sales and strong performance.

Hyundai E&C announced the tentative estimates of its business results in 2019 on January 22. The consolidated sales,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s for the period came to 17,299.8 billion won, 882.1 billion won and 578.6 billion won, respectively. The operating income margin retained its favorable momentum on a five percent level. As the builder was picked to deliver domestic and overseas projects, the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

orders received increased 27.4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o 24,252.1 billion won in 2019.

This year, Korea's primary builder aims to win new orders worth 25,100

billion won, up 3.5 percent compared to 2019. In January alone, it was awarded orders valued at over 2,000 billion won, or approximately 1.8 billion dollars.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Hyundai E&C recently signed a contract to conduct an 850-billion-won project to build the Oumache 3 combined-cycle power plant. Hyundai E&C consortium consisting of Hyun-

dai E&C, Hyundai Engineering and Posco International received the deal from HYEONCO (HyunSon E&C Spa), a subsidiary of Algeria's state-owned utility Sonelgaz.

Hyundai E&C received the Letter of Award (LOA) dated January 14 for the 609.3-billion-won Lusail Plaza Towers Plot 3 from Qatar's Lusail Real-Estate Development Company. Prior to this, the builder secured an order for the Lusail Plaza Towers Plot 4 worth 613 billion won on January 2. The amount of the orders combined reached as much as about 1,200 billion won, or approximately 1.06 billion dollars.

탄탄한 실적·수주 기세 몰아 ‘Global Top Tier’로 비상

2019년 연간 실적 신규 수주 24조2521억원, 매출 17조2998억원 ... 2020년 1월에만 2조1000억원대 해외 수주 기록

우리 회사가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과 수주 저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톱티어(Top-Tier)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월 22일 2019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17조2998억원, 영업이익 8821억원, 당기순이익 578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5%대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주는 사우디 마잔 프로젝트(패키지 6&12), 고속국도 김포~파주 제2공구 등 국내의 공사를 따내며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4조25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연간 수주 목표 24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수주 잔고도 전년 말 대비 0.9% 상승한 56조3291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약 3.3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올해도 설계·수주·수행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주 목표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25조1000억원이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연초부터 거침없는 수주 행보를 기록 중이다. 올 1월에만 2조원(약 18억 달러)이 훌쩍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전통 해외 수주 강자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7억3000만 달러

(약 8500억원) 규모의 ‘우마셰3 복합 화력 발전소 공사’를 계약했다. 알제리 국영 전력청(Sonelgaz) 산하의 자회사 하이엔코(HYENCO, Hyunson Engineering&Construction Spa)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사를 맡는다. 발주처인 하이엔코(HYENCO)는 2015년 11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알제리 전력청과 함께 설립한 합작사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49%, 알제리 전력청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수도 알제(Algiers)에서 동남쪽으로 340km 떨어진 비스크라(Biskra)주 우마셰 지

역에 약 13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연평균 발전량은 968만MWh(메가와트시) 규모다.

한편 1월 14일에는 카타르 부동산 개발회사(Lusail Real-Estate Development Company)가 발주한 총 약 6093억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3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앞서 2일 새해 첫 해외 수주의 포문을 연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4(총 6130억원)에 이은 수주 낭보로 두 공사의 수주 금액만 약 1조2000억원(10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루사일 시티 내 금융지구(Lusail City

Financial District)에 지하 5층~지상 7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2개동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전체 4개 구획 중 두 개 PLOT의 공사를 맡으며 발주처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스포츠청(Sport Singapore)이 발주한 약 2700억원(당사분 1900억원) 규모의 풍골 스포츠센터 낙찰통지서(LOA)를 받았다. 이 공사는 싱가포르 풍골(Punggol)지역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스포츠센터 및 야외경기장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부지 면적은 4만8180㎡, 연면적은 12만3617㎡다.

Automatic ventilation system for bacterial removal developed

Our company has successfully developed the world's first "air purifying ventilation system designed for individual apartment units." Our company sets out to unveil the H Clean α+ upgraded from our fine dust total solution released last year. The new ventilation system works in each apartment units to not only reduce fine dust but get rid of VOCs, formaldehyde, bacteria, virus and germs which cannot



be eliminated even with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filters.

세대용 전자동 세균제거 환기 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세대환기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며, 지난해 선보인 미세먼지 토털 솔루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H 클린알파 플러스(Clean α+)'를 선보인다.

우리 회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총동원한 '공기청정 세대환기 시스템'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해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폼알데하이드·박테

리아·바이러스·곰팡이 등을 제거하는 제균 기능까지 갖춘 세대환기 시스템이다. 현재 특허 출원은 물론 국내 최초로 PA인증(한국오존차외선협회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공기살균기로서의 기능도 인증받았다. '공기청정 세대환기 시스템'은 향후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힐스테이트 현장에 기본 또는 옵션설계 형태로 적용할 계획이다.

Six prizes achieved at the 2019 Good Design Awards

Our company was awarded six prizes at the 2019 Good Design Awards. The design endorsement program, one of the most prestigious domestic design awards, conduc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regarding designs, appearance, functiona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Six entries by Hyundai E&C, such as the Heritage Garden Yeonhawon of THE H HONOR HILLS and the Central Square of



Hillstate Homaesil, were selected as the winners at the Awards.

‘2019 우수 디자인상’ 6관왕 달성

우리 회사가 '2019 우수 디자인상(Good Design Awards)'에서 6관왕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우수 디자인상'은 상품의 디자인 및 외관·기능·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으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이번 심사에서 우리 회사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헤리티지 가든 연하원' ▶힐스테이트 호매실 '중앙광장' ▶힐스테이트 동

탄 '물놀이터&숲 소풍길'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파크 '색연필로 만든 미술관' ▶힐스테이트 녹양역 '파니집 조합놀이대' 등 6개 작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 관계자는 "2018년 5개 부문 수상에 이어 2019년에도 6관왕에 오르며 현대건설의 뛰어난 조경 디자인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Hyundai Geonwuhoe: regular general meeting and New Year greeting



Hyundai Geonwuhoe held the 25th regular general meeting and the New Year greeting ceremony on January 9 in a hotel downtown in Seoul. The event was attended by about 550 Geonwuhoe members and the current officials including Hyundai E&C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The gathering started with an opening address delivered by Geonwuhoe Chairman Ahn Seung-kyu, followed by Mr. Park Chan-kyu's speech and Hyundai E&C Vice Chairman Chung Jin-haeng's congratulatory message.

2020년 현대건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개최

우리 회사 전직 임직원 모임인 현대건우회가 지난 1월 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25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제25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는 박삼영·이내흔·김광명 회장을 비롯한 현대건우회 회원과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승규 현대건우회 회장의 인사말과 박찬규 회장의 격려사, 정진행 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실시됐다. 정기총회를 겸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2019년 결산 및 감사 보고, 2020년 예산안 심의 및 선임 회장단 선임 등도 함께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수열 전 토목사업본부장이 선임 현대건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수열 회장은 "9대 회장단과 함께

모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OB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우리 회사 정진행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건설은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덕분에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해외 주 시장에서 오히려 대폭 개선된 성과를 기록했다"며 "여세를 몰아 올해도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우회'는 1996년 6월 창립한 우리 회사 퇴직 임직원들의 친목단체로,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OB모임으로 꼽힌다. 1700여 명의 회원 대부분이 1960~7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동한 건설업계 원로다.

GROUP NEWS

Hyundai Motor unveils human-centered vision for future mobility at CES 2020

Hyundai Motor has unveiled its innovative vision for future mobility with an aim to realize human-centered, active future cities at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To turn the vision into reality, Hyundai Motor showcased UAM (Urban Air Mobility), PBV (Purpose

Built Vehicle) and Hub (a place for mobility transfer) as three mobility solutions for the future. The carmaker aims to free future cities and people from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enable them to create more value in their lives, based on these mobility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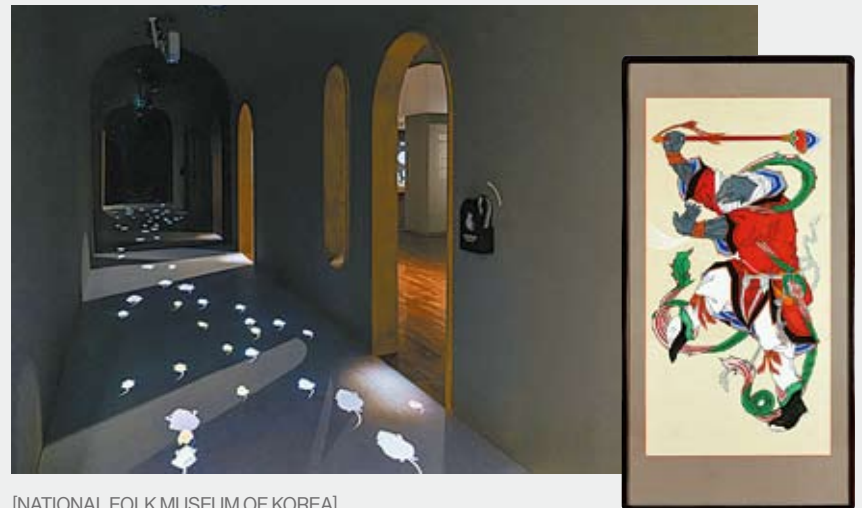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CES 2020에서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

현대자동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 2020)'에서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모

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세 가지 솔루션을 토대로 미래도시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브랜드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Korean 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xamining the rat's significance in Korean history

Jan 03

With a pointy nose that can smell food from miles away, they can survive electricity shocks and breed in temperatures as low as negative 70 degrees Fahrenheit. They once almost wiped out the human race entirely, and ultimately, they're looking to call your home their own.

It is now the Year of the Rat - and while that may be good news for some, others aren't so sure how they feel about the rodents.

"Even a Rat has Its Day," an exhibition dedicated to the Year of the Rat, opened at the museum in central Seoul on Christmas Eve. It will be open on the first floor of the museum until March 1.

The exhibit is designed to invite visitors to walk through and witness some of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Korean people had about rats and mice, from the Three Kingdoms

of Korea (57 B.C. to A.D. 668) to more recent years.

Paintings from this age tend to portray rats as half-animal and half-human beings that can protect people from harm, in agreement with local beliefs that saw the 12 zodiac animals as types of guardians. The exhibition also showcases examples of talisman carried by people that used the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 for r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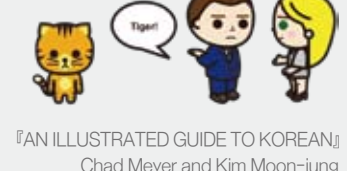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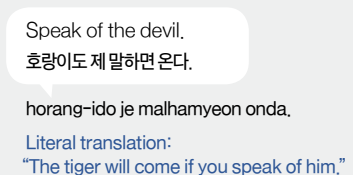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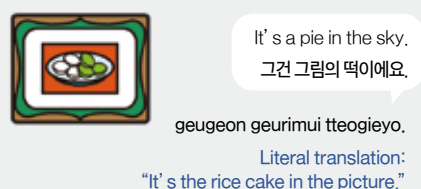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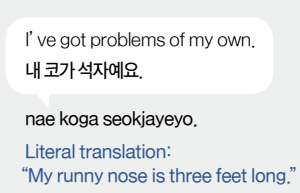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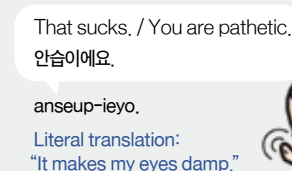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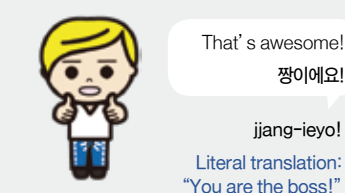
"If you look through 'Samguk Yusa' [a book about the legends and history of ancient Korea's Three Kingdoms], you see how the people at the time characterized mice and rats," said Kim Jong-dae, professor of folklore at Chung-Ang University in southern Seoul, in a lecture he hosted at the museum on Dec. 24. "In the stories told in the book, mice and rats often take a role as a figure with wisdom and foresight."

By KOREA JOONGANG DAILY

Guide to Korean

Slang & Colloquialisms

You might not experience language problems while learning Korean at the basic level. However, the deeper you get into the language the more you'll realize that slang and colloquialisms are quite common and challenging. Now is a good time to begin to prepare for how Koreans actually sp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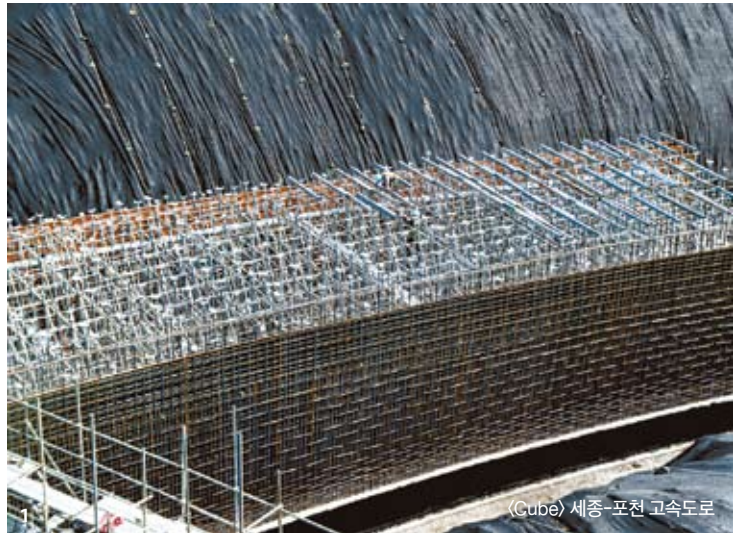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had Meyer and Kim Moon-jung



‘거대한 공간’ 그 속에 ‘위대한 사람’ 현대건설인의 열정을 뷰파인더에 담다

지난 13일 우리 회사 본사 사옥 1층 로비에서 ‘건설 is 열정: 현대적인 삶, 건설적인 사람’ 사진전이 열렸다. 건설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비계”를 세운 전시장에 현대건설인의 뜨거운 숨과 땀방울이 가득한 순간을 담았다. 글=이진우



1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로 구현한 전시장에서 실제 현장의 열정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2 많은 임직원과 외부 관계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3 이원석 작가의 도슨트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정 가득 있는
번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겁니다.
현대건설 화이팅!
신강민

현대건설
최종승님.
백승민.
최영호 20.1/3

열정당은 사진 잘 보고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현대건설 화이팅!

- 현대중공업 YR0
- 현대중공업 SM0

건설자들과 성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건리 인사담당자

- 현대중공업 YR0
- 현대중공업 SM0

“عبدالله، تيمم الغد” المصدر: “عبدالله، تيمم الغد”
في حياة عبد الله تيمم يوم سابع الشتاء، بينا الله الملائكة
الأمر لشدة حبه في رحمتها سلة من طينها وهدية الله.
أسير محبها لا يلقط الصور منسحب على نفسه بل يشارك في التقاطها.

사진전을 통해 현대건설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과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드는 공간 그리고 현대건설인 그들의 삶을 조명하다

육중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차가운 쇠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때리는 건설 현장. 깔고, 뚫고, 다지고, 올리는 치열한 시간이 쌓여 하나의 대작을 완성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과 인프라 곳곳에는 이렇게 현대건설인의 열정과 장인 정신이 녹아 있다. 우리 회사의 거대한 현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물들의 열정, 그 조화의 순간을 공간사진가 이원석 작가가 뷰파인더에 담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이원석 작가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친 약 3개월간 ‘서울제물포로지하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세종-포천 고속도로’ ‘김포고촌 물류시설’ ‘힐스테이트 신촌’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 시티’ 등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6개 현장을 방문했다. 평소 스케일이 큰 공간을 선호하는 작가마저 낯을 놓게 만든 압도적인 현장. 그 위용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이 작가는 치밀하게 돌아가는 현장의 시계에 금세 적응해야 했다. 현장 사람들과 뜨거운 여름 땀 아래서 새가팔게 타기도 함께, 피로 회복제 한 병으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함께. 그렇게 그들의 호흡에 자연스레 스며든 결과, 일과 속에서 빛나는 열정의 순간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길 수 있었다.

공사 현장을 누비는 이원석 작가의 어깨에는 늘 무거운 장비들이 얹혀 있었다. 공정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날것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찍고자 하는 장면에 대한 빠른 판단과 현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용도의 카메라 네댓 대와 조명을 이고도 힘든 기색 없이 촬영에 몰두하던 그는 “세밀하게 진행된 현장 사진접사와 조율 그리고 안전에 대한 배려 덕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현장 관계자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현장의 호흡을 옮겨놓은 듯한 전시 공간 현대건설인의 열정을 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열정을 활용한 사진들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 본사 사옥 1층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실제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구현하고자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를 설치하고 작품 배치, 조명 세기 조절로 몰입감을 높였다. 다양한 입장로와 자유로운 동선으로 작품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홍보보실 직원들이 돌아가며 안내를 도왔다.

전시 첫날에는 이원석 작가가 직접 도슨트를 진행해 전시장을 찾은 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객들은 작가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작품 설명에 빠져들었으며, 이미 친숙한 영화 타이틀을 패러디한 작품명으로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건설 is 열정’ 캠페인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래퍼 키썬과의 뮤직비디오 작업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이다. 키썬과 함께 ‘도전’을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이원석 작가와 함께 ‘열정’의 순간을 포착했다. 건설과 문화예술의 만남으로 이목을 끈 이 시도는 우리 회사 고유 DNA인 ‘도전’과 ‘열정’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함으로써 건설업의 새로운 면모를 내보냈다는 평을 받았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기존의 보수적인 건설업 이미지를 벗고,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비계: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Strong passion and artisan spirit of Hyundai E&C people are prevalent among living space and infrastructure in our day-to-day reality. Hyundai E&C sought to capture such passionate and harmonious moments created by our employees working at gigantic construction sites through a viewfinder in collaboration with photographer Lee Won-seok.

For the five-day photo exhibition which opened in the headquarters on January 13, Lee paid visits to six construction sites over about three months, such as the Seoul-Jemulpo Tunnel, Busan New Port's West Container Terminal, the Sejong-Pocheon Expressway, Gimpo Gochon Logistics Facility, Hillstate Shinechon, and Hillstate Ijin Bay City.

This promotional campaign titled "Construction Is Passion" is Hyundai E&C's second collaboration with artists after we worked with rapper Kisum to release the music video on "challenge" last year. This novel photo exhibition was well received as it drew attention from a broader audience by attempting to combine construction with culture and arts. Our company is planning to break from the conventional imag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further reach one step closer to the public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to make our corporate images younger and more artistic.

Interview

세계적인 공간사진가 이원석



약력
KARIYAS Art Base 대표
EBS 방송 사진 전문 패널
SEGD Award 한국인 최초 수상

전시
2019 architecture & landscape
2018 life & architecture
2016 POST PHOTO
“클라라 루벤스를 회상하며”

Q. 전시회를 개최한 소감

규모가 큰 공간을 찍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속의 인물, 그들의 삶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공존한 작업이었다. 작은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고생하며 낸 결과라 만족스럽다.

Q.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사진 속 인물의 자연스러움을 잘 표현하고자 했다. 편안하게 촬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연출은 거의 하지 않았고,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작품인 건설물 앞에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또 하나의 작품을 남기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Q.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서울제물포로지하화에서 촬영한 ‘A Space Odyssey’다. 가장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차를 타고 거친 통굴 속으로 들어가다 갑자기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했다. 설치에만 고박 1개월 반이 걸렸다는 거대한 비계 구조물이 나타난 건데, 그 웅장함이 너무 멋있어서 잊히지 않는다. 사진에 표현된 정도가 아쉬워 내가 사진 작가로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속제가 남았다.

*‘A Space Odyssey’ 사보신문 면 사진 참고

Q.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안전을 이렇게까지 챙긴 작업이 드 있었나 싶다. 촬영하다가 욕심이 생겨 현장 이곳저곳으로 발일이 향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동이 걸렸다. 늘 현장 관계자의 동행하에 원칙대로 움직였다.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작가님, 거기는 안 됩니다!’였을 정도다.

Q. 현대건설 공사 현장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보니 이들이 ‘진정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보통 완성된 건설물을 보고 이용하는데, 그 하나의 작품은 결국 이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만든 것이지 않나. 자신이 만든 건설물에 자부심을 가진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이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새삼 더 강해졌다.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Q. 현대건설은 문화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진행 하고 있다. 참여 작가로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는지

처음에는 쉽사리 조화를 이루기 힘든 장르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현장을 다녀보니 접점이 많다는 걸 느꼈다. 건설물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고, 그 과정도 예술 작업과 닮은 구석이 많다. 비계 전시를 제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장 구조물과 전시가 만나 하나의 공간적 예술성을 나타냈지 않나. ‘건설’하면 쉽게 와닿지 않고 딱딱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협업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건설 is 열정』

온라인 사진전

바로그기



현대건설 2020 챌린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신년 기획 지난해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1월. 홍보실은 사우들의 도전 정신과 가능성을 응원하기 위해 연중기획 ‘현대건설 2020 챌린지’를 진행한다. 분기별로 두 명의 사우를 선정해 ‘드림 머니(Dream Money)’를 지원하는 신개념 이벤트로, 무엇보다 ‘시작’ 하길 희망하는 사우들에게 동력이 되고자 기획했다. <사보신문>을 통해 각오를 다지고 마침내 해낼 사람들, 2020 챌린지의 첫 주인공은 안용국 부장과 지윤환 대리다. 글·사진=박현희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교관)’ 국가전문자격증에 도전!

1992년에 입사한 후 항만·도로·택지 등 여러 현장을 두루 다닌 안용국 부장은 입사 28년차 ‘배타량 토목장이다. 100m 달라기를 하듯 앞만 보고 살았다는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2017년 11월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서부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일해 온 데다 건강을 자부했던 그것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당시 그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다. “아빠는 뭐 좋아하세요?” 특별한 시기의 이 평범한 질문은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젊음을 자산으로, 열정을 무기 삼아 30년 가까이 전력 질주했어요. 어느 날 과거를 되돌아보니 스스로에게 미안하다군요. 이제는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늘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도 돌보며 살아야겠다고요.”

안 부장은 2018년부터 매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 현장소장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영업 활동에 매진하는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여유가 있는 날이면 마냥 누리는 대신 취미를 위해 시간을 할애했다. 첫 번째는 원동기 자격증. 다음은 선박 조종 면허, 그렇게 2019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엑시트)를 보면서 드론에 관심을 가졌어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카메라’ 정도만 생각했는데, 인명 구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더군요. 여행지에서 가족사진을 특별하게 찍을 수 있고, 현장의 공정 사진도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죠.”

그가 말하는 드론의 매력은 ‘자유’. 새가 된 듯 높이 날라다녀서 볼 수 있고, 날씨 탓에 기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드론 비행 일정을 잡은 날이면 소풍을 앞둔 아이마냥 설레는 이유다.

올해 안 부장의 목표는 드론 지도조종자(이하 ‘교관’)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취미라도 한 분야를 전문성 있게 파보라”는 아내의 조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재미있고, 현장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다. 그러나 교관 자격증은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워낙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시험 접수부터 ‘광클(빛의 속도처럼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필수. 80시간의 비행 경력을 채워야 하는 것도 적은 부담이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휴일에 마냥 늘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죠. 꿈을 이루려면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현대건설 2020 챌린지’가 목표를 이루는 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요. 드론은 현장 공정 사진 촬영뿐 아니라 안전관리, 측량(매핑)에도 효과적이에요. 드론 교관 자격증을 따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행 계획서

- **목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교관 자격 취득
드론을 활용한 공정 사진, 안전관리, 측량(매핑) 기술을 익혀 현장 업무에 도움 되기
- **‘드림 머니’ 사용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도서 및 온라인 강좌 수강
- **개념**

구분	소요일
실기 코스(이착륙, 전·후진, 수평, 회전) 비행	5
T자 대면 비행	5
원주·삼각비행	5
양궁촬영 비행 및 편집	5
3D 사진촬영 및 적용	5
비행연구 강의자료 작성 및 보조교관 OJT 수행	5

‘105kg → 94kg’ 체지방 10% 감량 후 6개월 유지에 도전!

2012년 연구개발본부(당시)에 입사해 ‘자연형 하상복원 및 하도육역화(河道陸域化) 관리기술 개발’ ‘싱가포르 해안지역 복합오염 준설토 대상 정화기술 개발’ 등 환경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일조한 지윤환 대리. 2018년 토목설계실 토목항만수자원설계팀에 합류한 후에는 수력발전(댐), 배수시설, 토양 정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입찰 설계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그의 인생 최대 난제는 바로 ‘다이어트’. 어린 시절부터 군것질을 좋아했다는 지 대리는 특히 아이스크림 마니아로, 하루에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먹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헬스와 수영, 각종 구기 종목 등 다양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한 덕분에 182cm 80kg대를 유지했다.

남다른 체중을 갖게 된 건 2016년 결혼 후 이듬해 첫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면, 육아라는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해야 했던 것. 아이와 한참 놀아주고 나면 저녁때를 놓치기 일쑤. 아이를 재운 후 아내와 함께 먹는 맥주 한잔과 야식이 그에게 유일한 휴식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육아는 참 힘들어요. 그러다 스트레스가 폭발하면 한 끼에 과자 8~10봉지, 아이스크림 한 통,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어요. 업무 스트레스와 가사·육아 스트레스는 꾸준히 받는데 해소할 출구는 없으니 폭식으로 푸는 거죠. 서너 시간 안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폭발적으로 먹으면 그 주에 신경 써서 뱌 살보다 더 많이 췌 있어요.”

다이어트에 큰 관심은 선 것은 오는 2월 태어날 둘째 덕분이다. 건강검진 때마다 콜레스테롤, 지방간 등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갑자기 위기감이 들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멋진 ‘아빠’이자 ‘배우자’가 되고 싶었다.

“‘현대건설 2020 챌린지’ 모집 공고가 떴을 때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새해면 각자 목표를 세우는데 일취지봉(一炊之飯, 밥 지을 동안의 꿈)으로 끝나기 일쑤니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30대 후반에 접어들 만큼 건강한 몸으로 40대를 맞고 싶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라요.”

다이어트에 돌입한 그는 104.6kg으로 1월 20일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3개월 내 최소 11kg를 감량하기 위해 좋아하던 간식을 끊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할 계획이었다. 맛벌이로 함께 육아노동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운동시간을 양해받았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이 마음을 잘 유지해서 아이들이 커갈 때 보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내가 허락해준 시간으로 건강해지는 만큼 더욱 열심히 살을 빼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실행 계획서

- **목표** 체중 감량 10% 이상(최소 11kg, 105kg 체중 기준), 감량 후 6개월 이상 체중 유지
- **‘드림 머니’ 사용처** 3개월 헬스 및 수영 등록
- **개념**

월간	예정 기간	컨셉트	수행	감량목표(kg)
1st Month	1/16 ~ 22	몸 Reset	7일간의 단식	-7
	1/23 ~ 29	위기 극복	연휴기간 중 식사 주의	
	1/30 ~ 2/5	체중감량 기간	채식 식사 비율 상향	
2nd Month	2/6 ~ 2/12	시간 Balance	둘째 출산 / 육아·가사·운동시간 조율	-5
	2/13 ~ 2/19	1차 목표 점검	체중 체크 + 목표 및 계획 조정	
	2/20 ~ 2/26	돌발상황 대비	억눌린 식욕과 스트레스의 해소	
3rd Month	2/27 ~ 3/4	사생활 인간	주말 새벽시간에 수영	-3
	3/5 ~ 3/11	한치두지	첫째와 둘째를 보면 기쁜 UUP	
	3/12 ~ 3/18	2차 목표 점검	체중 체크 + 목표 및 계획 조정	
	3/19 ~ 3/25	아침 폭식	I'm Boxer 최종 체지방 측정	
	3/26 ~ 4/1	수분도 무개	저염식으로 수분도 조절	
	4/2 ~ 4/9	몸무게 Range	유지·관리 단계로 진입 준비	

더 나은 2020년을 위한 ‘작심삼일 타파’ 노하우 대공개



‘작심삼일’이란 목표 성취 분야에 투입된 일종의 ‘스파이’ 일지도 모르겠다. 큰맘 먹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의 실행력을 3월 안에 끝까지시키고, 한 번의 실패로 목표를 무기한 미루게 하는 능력(?)도 가졌다. 책 『작심 후 3일』에 따르면 ‘작심삼일’의 본질적인 문제는 못 버틴 ‘3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처리된 ‘작심’에 있다. 여러 개의 희망사항만 늘어놓은 것은 목표의 실행이나 성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심 이후, 계획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Step 1 생애계획, 인생이란 대로에 이정표 세우기

우리가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애계획’이 필요하다. 생애계획의 첫 단계는 인생이란 여정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찾는 것이다. 당연히 타임라인의 시작은 출생, 끝은 생을 마감하는 나이다.

다음 단계는 끝부터 일정 시기로 거슬러 올라오며 그 시점을 하고 있을 일을 그려 보는 것이다. 10년 단위로 끊고,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미만이 남으면 5년 단위로 쪼개고, 5년 미만의 나머지 시간은 1년 단위로 쪼갬다. 이제는 생애계획표를 작성할 차례다. 상상력을 발휘하며 미래 모습을 그려보자.

기간	나이	나의 모습
2020(현재)	33	결혼 2년차, 첫째 아이를 얻다
2021	34	과장 승진
2023	36	둘째 아이, 내집 마련 성공, 영어 마스터
2024~2027	37~40	회사에서 관리자로 인정받음,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자 취득

생애계획표(예)

Step 2 10년 단위로 표현하는 인생 계획

생애계획을 세웠다면 10년, 5년, 1년으로 계획을 세분화한다. 계획하기란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물 정(井)자’ 계획법을 사용해 보자. 종이에 9개의 칸을 만들고 가운데 칸에 주제를 넣는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있는 칸부터 시계 방향으로 칸을 채운다. 이를 통해 생각이 어느 정도 갈무리되면, 10년 단위의 인생 계획을 정리해 보자. 목표가 훨씬 뚜렷해진다.

친구들(연인)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
사업(또는 일)	40대를 계획함	가고 싶은 곳
재산	건강	가족

우물 정(井)자 계획표(예)

Step 3 5년이면 뭐든지 이룬다, 장기 계획

5년 장기 계획은 회사의 장기 전략 물리를 빌려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입-성장-성숙-완숙-결실’의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각 단계를 1년 단위로 보면 편하다.

기간	명칭	주요 계획 내용
1년차	도입기	계획을 완성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 6개월이 넘기 전에 작은 목표 하나를 최초로 성취하도록 계획하면 좋다.
2년차	성장기	핵심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해. 6개월 단위로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배치하는 단계로, 이때 전체 계획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다.
3년차	성숙기	핵심 과업 중 절반 이상을 달성하는 기간. 전체 계획의 클라이맥스이자 전문성이 발휘 시작하는 때다.
4년차	완숙기	전체 계획의 80%를 달성하는 기간이자 핵심 과업 대부분이 성취된 단계. 실질적인 목표 달성기다.
5년차	결실기	지난 4년간 실행한 과업들을 점검하는 시기이다. 성취 여부를 생각하고, 다음 5년을 구상한다.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5년 단위 장기 전략

5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분석’이 필수다. SWOT(S 목표 달성을 유리하게 만들 강점·W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주는 약점·O 목표 달성을 수월하게 만들 기회·T 노력과 별개로 목표 달성에 위협을 주는 요소) 분석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포기할 활동/집중할 활동/도전할 활동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것이 정리되면 위의 표와 같이 5년 단위 장기 전략을 세운다.

Step 4 느슨할수록 힘이 생기는 연간 계획

1년이라는 기간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온전히 1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계획의 시작은 ‘한 문장 목표 만들기’에 있다. 올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 문장에서 파생된 개인 목표와 업무 목표를 가리지 말고 모두 적어 본다.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으로 온갖 목표들이 눈앞에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도 즐거움이다.

주말 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여름이 오기 전 체중 5kg을 감량한다	봄에 친구들을 베틀농사로 주말 여행을 다녀온다
타투사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구민회의 연간 계획 목표	문화센터에서 강좌(동영상 편집) 아나를 수강한다
가래치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업무 장악력을 높인다	6월 수주에 기여할 ‘확실한 수주 설계’로 업무 평가에 최고득점을 낸다	수령을 배운다

연간 계획 양식(예)

계획의 기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면 꼭 하는 일이 바로 ‘작심’일 것이다. 많은 이가 신년 계획의 스테디셀러인 글면부터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기술자 취득 등을 꼽지만, 대부분의 작심은 3일을 넘기기 어렵다. 2020년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며 ‘이생량!’(이번 생은 망했다)을 줄여 부르는 신조어!이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자. 우리에겐 아직 열한 장의 달력이 더 남아 있다. 자료제공=『작심 후 3일』(다우출판사)

이제 목표들을 연간 목표 캘린더에 기한과 함께 반영해 보자. 날짜까지 정해진 못해도 달을 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백지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편 연간 계획 양식을 만들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도록 연필로 적는다. 모두 썼다면 이제 분석할 차례다. 같은 달에 너무 많은 목표가 집중돼 있지 않은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가까운 기간에 배치돼 있는지 하는 것들이다. 분석 후에는 캘린더에 수정 내용을 반영한다. 이때는 색상의 불편으로 한껏 꾸민다. 그러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계획표를 둔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체중감량 10kg									
2			가래치 관계 개선									

간편 연간 계획 양식(예)

Step 5 월간+주간 계획은 늘 함께 한다

월간 계획을 제대로 짜기 위해선 그 시야를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3개월간 실행 목표와 계획을 세워 100일에 한 번씩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나 계획을 세분화한다. 또한 한 달은 기본 4주로 구성돼 있다. 첫 주에는 이번 달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자. 첫 주를 망치면 월간 목표에 대한 의욕도 슬그머니 줄어든다. 첫 주를 치열하게 보낼수록 마지막 주가 보람차다.

주간 계획을 세울 때의 포인트는 평일과 주말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주말을 평일처럼 사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물리적인 상황일 때다. 중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 써야 한다. 주말 계획은 가급적 쉬고, 출근하는 계획을 짜라. 이런 일에도 계획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일요일은 7일이지만, 주말을 빼면 5일이란 시간이 남는다. 각 요일의 하루를 쪼개 보자. 오전과 오후로 나뉘고 좋고, 아침/오전/오후/저녁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간 ‘계획’이 아닌, 주간 ‘약속’으로 생각을 바꾸자. 눈으로 월간 계획을 쫓고, 팔·다리는 주간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Step 6 시간을 정복하는 마법의 일일 계획

일일 계획은 시간 관리에 가깝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다. 첫째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오전 중 10~20분 정도 계획을 점검하고 검토한다. 둘째는 ‘오늘의 숙제’를 확인하는 일이다. 가끔은 중요한 일이지만, 혼자 하는 탓에 일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시간을 잡아 숙제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나만의 ‘베스트 컨디션 타임’을 사수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그때 제일 중요하고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 넷째는 이메일 확인을 아무 때나 하지 않는 것이다. 8시~11시~16시 등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메일만 적절하게 살핀다. 다섯째로는 우발적 업무에 대처할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시간의 간격을 여유 있게 배정함으로써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루를 망치지 않는다. 여섯째는 잠자기 전 하루를 리뷰하고 내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매일 상기하는 것이 좋다.

2020 해외건설시장 전망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며 해외건설시장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이와 얼마나 속도를 맞추고 있을까. 해외건설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요 권역의 시장 규모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생존 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글=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전략기술연구실 연구위원

건설 산업에도 디지털 열풍이? 해외건설시장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다

시장 다각화 ... 아시아·태평양 주목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실적은 200억 달러 미만으로, 2006년 수준(165억 달러)에 머물렀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발주국의 환경 변화, 유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양적 경쟁력 감소와 기술력 기반의 질적 경쟁력 정체 또한 빼놓을 원 인이다.

글로벌 전문 전망기관(IHS Markit 등)은 2020년 건설 산업 규모를 약 11조7000억 달러, 연평균 약 2.7~2.8%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건설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은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건설 산업에서도 적용된다.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은 주변의 환경 변화 속도에 비해 미미했다. 해외건설시장은 외생변수(시장 밖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변동의 요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평') 권역의 해외건설시장 평균 성장률은 4%, 국내 건설사의 주력 시장인 MENA(Middle East-North Africa) 권역은 3.8% 성장 이 예상된다. 동유럽 권역의 성장률도 약 3.4%로 추정 된다(〈표 1〉 참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국내 건설사의 생존 전략은 시장 다각화와 아태평 시장 선점이다. MENA 권역은 국내 건설사의 오랜 수주 발자 마인 시장으로, 실 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MENA의 해

외건설 투자 규모는 전체 시장의 5%(5000억 달러) 미만 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중국에 MENA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생존을 위해 시장 다각화가 필수 인 이유다. 국내 건설사가 올해 주목해야 할 곳은 아태 평 권역이다. 2020년부터 아태평의 건설 투자 규모 및 비중은 50%(6조1000억 달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신속한 준비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 도입 본격화해야

국내 건설사와 글로벌 선진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는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건설사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보강이 시 급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를 통한 해외건설 비이슈 개발II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2018년 글로벌 경쟁력은 20개 국가 중 1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며 그 뒤를 스페인,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 이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 순위가 높지 않은 까닭은 해외 프로젝트 미청구공사(공사 전, 공정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수익금을 계산해 반영하는 회계 방법)에 있다.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나, 매출 대비로 봤을 때는 미청구공사 금액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진 건설사의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도 순위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선진사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애자일 관리 체계(Agile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글로벌 선진 건설사는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이 바뀌면 빠르게 기술 확보를 준비했다. 투자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기업의 주력 시장도 함께 이동시켰다. 글로벌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건설사 벡텔(Bechtel)은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생산성 혁신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벡텔처럼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다른 선진 건설사의 2020년 전략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이제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건설 서비스 및 상품만으로는 경쟁이 힘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내 건설사도 기술 디자인* 역량 확보와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 기반 사업개발, PM/CM(건설사업/프로젝트 관리), 시설자산운영 사업 등 주력 비즈니스의 영역 확대를 준비해야 해외 시장점유율 약 9%이던 2010년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은 개발도상국의 건설사를 당할 수 없다. 이제는 기술 경쟁력, 즉 디지털 기술을 건설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0년 현대건설이 해외건설시장 지배하길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신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선진 건설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술을 공유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국내 건설사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내 건설사의 기술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글로벌 선진 건설사와의 디지털 기술력 격차는 오히려 더 크게(2~4년) 벌어졌다.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시장에는 생산성 혁신, 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기술력의 지속성도 단축됐다. 우리의 기술 성장을 기다려주는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대담한 도전을 하라는 주문은 국내 건설사에 주는 메시지다.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공룡 기업들을 숏하게 봤다. 2020년 해외건설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격화되고 변화가 빠를 것이다. 이제는 기다리는 신중함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도전이 필요하다.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갈라파고스섬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확한 방향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올 한 해 현대건설이 해외건설시장을 지배하길 기대해 본다.

*기술 디자인: 4차산업혁명으로 건설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설계, 로봇 기반 시공 자동화, BIM 플랫폼 기반 모듈화, VR/AR을 활용한 사업기획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프로세스 및 사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성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기술 융합 전략을 '기술 디자인'으로 정의한다.

[표 1] 2020년 해외건설시장 권역별 건설 투자 규모 및 평균 성장률

	권역별 건설 투자 규모 (Billion) 및 비중(%)	예상 평균 성장률(%)
아태평	6113 (52.4)	4.1
중동 및 아프리카	536 (4.6)	3.8
북미	1678 (14.4)	0.3
남미	410 (3.5)	2.2
서유럽	2357 (20.2)	1.65
동유럽	568 (4.9)	3.4

자료 : IHS Markit, Global Construction Outlook, 2019



현대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BIM 기반 설계 및 시공, 기계화 로봇릭스, 스마트 현장 관리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은 디지털 건설 시스템을 도입하는 쿠팡 대구물류센터(2021년 10월 완공 예정) 조감도.

세계적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앞으로의 10년이 인류의 삶 바꿀 신기술 혁명기”

피플인사이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석학이자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가 한국을 찾았다.
미래학자인 그가 주목하는 2020년의 미래기술 7가지는 무엇일까. 글=김유경 <이코노미스트> 기자 / 사진=전민규 기자

인간의 심리와 정치·경제·사회 변화 등을 입체적으로 통찰해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는 미래학(Futurology)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통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미래학과 통찰에서 기술은 필수다.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신기술이 우리의 생활방식은 물론 생각과 사회구조, 교육까지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 중 최고의 석학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았다. 그는 2030년에는 자동화로 전 세계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해 전통적 대학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거란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꿀 산업 환경과 사회상은 어떤가?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듯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다. 앞으로 10년은 인류의 삶을 바꿀 신기술의 혁명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자리가 암울한 것은 지금과 같이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 형태가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래밍·그래픽·글쓰기 등의 분야는 인공지능(AI)이 접목돼 노동자의 시간을 아껴주고 일의 숙련도를 보완해줄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과거 불가능했던 사업과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초과고용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길 것이며 여러 도구의 발달이 일자리의 전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자리를 예측한다면?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안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센서·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3D프린팅·AI 드론 등 여러 신기술은 총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기술·비즈니스 개발이 이뤄질 것이다. 모든 전자기술을 통합하는 e테크놀로지스 회사로 기존 기업이 진화하든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도 마이크로 산업을 시도하고 수많은 스타트업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20

년간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

가장 파괴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과거 배의 등장이 인간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상거래를 촉진했듯,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자율주행차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드론이 배송해 주는 등의 변화가 일상이 될 것이고, 과거보다 다양한 ‘이동성(mobility)’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동성은 대형 기업이 소유하고, 소비자들은 이용만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무선충전 기술도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을 집 주변에서 충전하기 위한 단거리 무선충전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으로 실제 이스케이프 다이내믹스(Escape Dynamics)라는 회사는 고출력 전자파를 발사해 드론·로켓·비행기 등의 동력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시험 중이다. 일본도 마이크로웨이브 형태로 전력을 방출할 우주 기반 발전소 건축을 구상 중이다. 장거리 무선 전력 송출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동력 전달 시대를 맞게 된다.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한 블록체인의 실생활 도입은?

현재는 성숙한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인프라가 건물·도로·수도·전력 등과 결합해 맞물려 돌아가듯 디지털 인프라도 데이터·클라우드서버·블록체인이 맞물려야 하는데, 이를 아우르는 완벽한 구조물이 아직 없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의 필요성도 크게 못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전 세계에 신뢰를 주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양자 수준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의구심이 들고 해답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업 지원·교육·자금 조달·엑셀러레이터·협업·인재 관리를 포함한 파괴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은 시스템이다. 이를 가로막는 규제와 기존 체제의 반발을 대체할

독창적 방법을 제시하는 신생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금융·교육 등 분야는 이제 태동기인데 10년 후에는 예전 산업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혁신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만 플랫폼 기업과 신기술이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세계 공통의 규칙이 필요하다.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100년 후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어떤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인도’를 꼽는다. 아직 시스템은 미비하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실력 있는 인재가 많아 잠재력이 풍부하다.

앞으로 AI가 예지력을 갖거나 미래학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렇다. AI에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면 계산 속도와 정보 처리량이 100만 배 이상으로 늘어 비즈니스 의사결정과 실패 예측, 주식시장 동향, 범죄 예측까지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래 예측이 모두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동기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축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긱 이코노미: 시대변화 대응을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토머스 프레이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

암호화폐	금융시스템 범주 밖 사람들의 금융 수요를 채워 국가 장벽을 넘는 사상 최초의 세계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행성 자원 채굴	지구와 가까운 소행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희귀 자원을 채취하는 기술이 등장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사람의 건강과 체력, 사고력 등을 100% 이상 향상시키거나 동식물과 소통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개발될 것이다.
드론	드론은 저렴하다. 성충권까지 비행할 수 있는 태양광 드론이 등장하면 지구촌 통신 서비스를 한단계 높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발전 단계에 맞춰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2045년이 되면 AI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3D 프린팅	장기 등 신체 일부를 3D프린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거리 무선충전	고성능 마이크로 웨이브를 발사해 드론·로켓·비행기 등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한가닥이 소중한 머리카락, 있을 때 잘하자!

건강칼럼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이까지, 천만 명의 공통된 고민거리로 꼽히는 탈모. 작년에 비해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아 불안한 모드를 위해 준비했다. 탈모 방지에 도움되는 두피 관리법부터 제품까지 모발에 관한 모든 것. 글·정리=강은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번 시작되면 자나 깨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탈모. 심각한 신체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서운 한파와 이따금씩 부는 강풍에 한 올이라도 더 빠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탈모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잘못된 정보, 두피 관리 노하우 등 한 가닥이 소중한 모발을 지키기 위한 A to Z를 소개한다.

탈모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거나 빈약한 상태를 말한다. 탈모가 진행되면 머리카락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힘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약 50~70여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100여 개 이상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볼 수 있다. 원인도 다양하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탈모는 남성형·여성형·원형 탈모다. 남성형 탈모증은 유전적 요인과 안드로젠(Androgen)이라는 남성호르몬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여성형 탈모 역시 주원인은 동일하지만 그 양상에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선이 뒤로 밀리면서 양측 측두부로 이어지는 M자 모양의 탈모가 많고 정수리부터 뻗은 대머리 탈모도 있다. 그에 반해 여성 탈모는 정수리 부분이 빈약하고 전체 머리숱이 적어진다. 원형 탈모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원형 혹은 타원형 모양으로 모발이 빠져 하얀 점처럼 두피가 보이는 게 특징이다. 머리카락 외에도 신체에 난 털이라면 어디든 빠질 수 있으며 부위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휴지기 탈모는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출산, 수술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원인이 제거되면 6~12개월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모발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탈모 유형은 흉터의 유무로도 나눌 수 있다.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희망적인 탈모는 흉터가 없는 비반흔성 탈모다. 모낭이 파괴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있다. 그에 반해 반흔성 탈모는 모낭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한 번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모낭 이식만이 탈모 치료의 해결 방법이다. 이렇듯 탈모는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모발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부터 탈모인들이 추천하는 제품은 무엇일까.

탈모인이 추천하는 꿀템!

Alpecin 카페인 샴푸는 남성 탈모인이 뽑은 최고의 제품이다. 모발 강화 및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Aveda 인바티드 어드밴스드 엑스폴리에이팅 샴푸는 강황·인삼·비타민E 등의 성분이 함유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두피의 가려움 및 각질 등을 완화시키는 데 좋다.

클로란 피오니 두피 세럼은 농축된 작약 뿌리 추출물이 가렵고 예민한 두피를 진정시키고 수분까지 공급한다. 부담 없는 사이드로 외출 시 갖고 나가서 사용하기도 편하다.

탈모를 예방하는 습관

① 샴푸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두피의 모낭은 신체의 다른 곳보다 크기가 크고 피지선 및 땀샘이 발달해 있어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두피 염증은 탈모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외출 후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 및 노폐물 등을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두피 재생이 활발해지는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 점도 저녁에 샴푸를 해야 하는 핵심 이유다.

② 화학성 계면활성제 NO! 자연유래 OK!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나쁘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계면활성제는 샴푸나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두피 및 피부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두피에 강한 자극을 주고 탈모를 촉진시키는 화학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아닌 '자연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제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머리를 감는 물은 미지근하게

두피에 열이 많은 탈모인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을 피해야 한다. 탈모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뜨거운 물은 두피의 모공을 늘어나게 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해 모발을 거칠게 만든다. 심할 경우 두피와 모발에 화상과 같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 모공을 열어주고 마사지 하듯 감아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① 모자를 쓰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를 감고 모발이 마르지 않은 상태나 땀이 많이 났을 때 모자를 쓰는 것은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두피 건강에 좋다.

② 삭발하면 머리숱이 두배가 된다?

머리를 밀고 나면 모발이 더 많이 자란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모낭의 개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다만 짧았던 모발이 잘리고 두피부터 굵은 모발이 새로 나와 머리카락이 더 많아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③ 탈모약을 먹으면 성 기능이 약해진다?

무엇을 더 우위에 둘지 선택에 따라 다르다. 탈모약도 약이기 때문에 100% 부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호르몬계 탈모약 부작용이 걱정이라면 비호르몬 성분의 먹는 약과 바르는 발모제 중 고민해볼 수 있다.

④ 기름지고 고칼로리 음식은 탈모를 유발한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은 음식은 두피의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 모근의 영양 결핍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피지 분비량도 높아져 지루성 탈모가 되기도 한다. 동물성 기름이 많은 음식 대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검은콩, 김, 다시마 등 '블랙푸드'나 견과류를 챙겨 먹자.

⑤ 브러시로 두드리면 머리카락이 자라나?

술이 늘어날 정도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두피를 자극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는 있다. 단, 끝이 뾰족한 브러시 및 촘촘한 꼬리뿔은 두피에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피하자. 나무 브러시 또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한 마사지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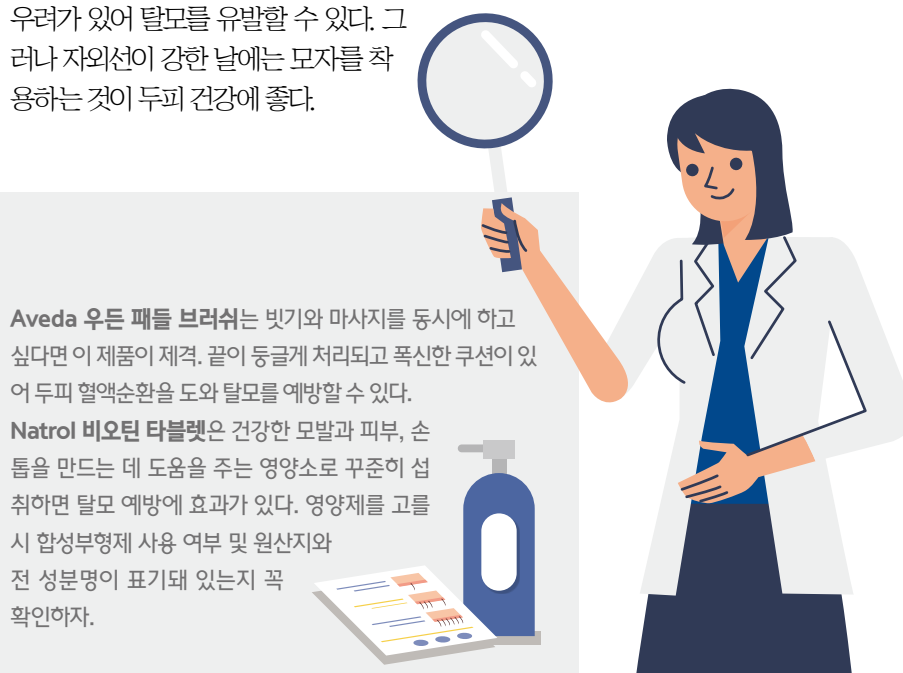


Check List! 탈모 자가 진단법

- ☐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이상 빠진다
- ☐ 이마가 이전보다 넓어졌다
- ☐ 두피가 가렵고 최근 비듬이 많아졌다
- ☐ 두피 뾰루지 등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 ☐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고 잘 끊어진다
- ☐ 정수리 부근 모발이 많이 빈 것 같다
- ☐ 최근 스트레스가 많다
- ☐ 평소 생활이 불규칙하고 편식·다이어트가 잦다
- ☐ 술·담배를 한다
- ☐ 빈혈 혹은 갑상선 질환 등 내과 질환이 있다
- ☐ 가족 중 탈모력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이전에 탈모가 발생한 적이 있다
- ☐ 두피가 외부로 노출돼 뿔이 보이거나 두피 색상이 누렇게나 붉다
- ☐ 두피를 누르거나 문지르면 통증을 느낀다

테스트 결과

증상이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탈모 초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계동산책

편안하게 즐기는 스테이크, 캐주얼 식당 도시라쿤



1 따뜻한 분위기의 지하 공간. 2 밖에서 바라본 도시라쿤 전경. 3 달콤한 로제소스 함박스테이크. 4 육즙을 가득 머금은 큐브스테이크. 5 계절 과일과 올리브를 추가한 DIY 라쿤 샐러드.

도시라쿤

주소 서울 중로구 계동2길 26
영업시간 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0시(일요일 휴무)
문의 02-6497-2227SPECIAL
EVENT

사원증을 제시하세요!

탄산음료(500ml)
1병 제공
2인 이상 테이블 당

멋진 벽돌 외관 위에 쓰인 상호명이 웬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스테인드글라스 속 귀여운 라쿤이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백반과 찌개류가 준비한 회사 주변에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식당, '도시라쿤'이다. 도시 곳곳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치 도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너구리와 닮은 것 같아 붙인 이름으로,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모토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건, 경쾌하게 흐르는 음악과 심플한 메뉴 구성이다. 한입에 쏙 넣으면 고소한 육즙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큐브스테이크와 입안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부드러운 함박스테이크, 쫄깃한 식감의 떡갈비가 기본 메뉴. 트러플 크림·로제·토마토 등 여러 소스를 활용해 다양한 식사를 제공한다.

도시라쿤은 스테이크에 한식 조리법을 접목해 모두의 입맛에 잘 맞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각종 소스는 물론 샐러드 드레싱, 피클 베이스도 직접 만드는데, 인공조미료나 방부제를 쓰지 않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감칠맛을 낸다. 특히 모든 음식에 사용하는 간장소스는 100kg 단위로 6시간 동안 끓여낸 후 약한 달간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스를 끓이는 작업장 한쪽에는 고기를 성형하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질 좋은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통으로 떼어온 고기를 직접 손질하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메뉴 포스터, 고기와 소스까지 주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몸은 힘들지만 계속되는 손님들의 발걸음과 '부대낌 없이 맛있게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도시라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백반 대신 색다른 한 끼 점심 식사도, 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곁들이는 술 한잔도 좋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더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도시라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글=이진우 / 사진=이슬기

현대건설 맛집 탐험단 Hyun-Chelin Guide

★★★★★



오영진 대리 박재근 과장 신준식 차장

스테이크와 크림소스가 잘 어우러지는 맛있었습니다. 맥주와 함께 먹는다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 과일과 올리브를 추가한 샐러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 주변에서 거의 매일 먹는 찌개나 탕에 지친 사우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



이양희 사원 김정태 사원 이기훈 사원

따뜻한 느낌의 내부와 은은한 불빛이 주는 분위기 덕분에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기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러플 향이 인상적인 트러플 크림 큐브스테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19사번 동기들과 함께 한잔하러 갈 것 같아요!

현대건설 편리미엄

슬기로운 회사생활을 위해! 추천 애플리케이션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사내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한다.

HDEC BizPhone(비즈폰)

본사 및 국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 애플리케이션. 본사 사내 전화 연동으로 자리를 비워도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동료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주요 기능 •출/퇴근 설정: 퇴근 설정 시 모든 전화 수신 차단(로그인 상태 유지, 발신 가능) •사내 연락처: 이름, 부서명, 내선번호, 담당 업무 등으로 임직원 연락처 조회 및 통화 가능(모바일 내선, 본사 내선 발신 무료)

설치 방법 http://gais2.hdec.co.kr/fmc 접속→ID(사번), PW(그룹웨어 비밀번호)로 로그인→다운로드→서버도메인(hdec), 비밀번호(모바일 내선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확인

현장 모바일 도면/문서 뷰어(AViewer)

현장 도면의 책자, 문서를 모바일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공간적 제약, 휴대 불편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

주요 기능 •PDF 도면(도면 변경사항 확인, 도면 내 코멘트 마크업 처리 및 공유) •DWG도면(열람, 레이아웃 관리, 도면 내 상세 치수 측정) •PPT/PDF/EXCEL/HWP 등 문서 열람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AViewer(for HDEC)' 검색 및 설치(현장 사용 신청: 총무실 IT지원팀) ※ 메일/결재문서의 첨부파일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그룹웨어는 올 1월 개발에 착수해 오는 9월 가동 예정.



•현장업무 모바일(모바일HPMS)

시공사·협력사 등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관계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현장 안전점검 및 품질 업무를 모바일에서 수행하고 관련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도 주요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태블릿을 활용해 보고할 수 있어 Paperless 업무에 유용하다.

주요 기능 •품질관리: 품질 관련 주요 공치, 현장 주요 사진 촬영, 부적합 사항/편치/균열/콘크리트 등 품질 관련 사항 점검 및 조치 관리 •안전관리: 부적합 사항 작성 및 조치, 사전작업허가서 조회 및 일일점검,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건설장비 등 정보 조회 및 관리 •HDOC 문서함: HDOC 내 문서 모바일 열람(개인문서함: 본인만 열람 가능, 공용문서함: PC HDOC에 관한 있는 사용자 모두 열람 가능)

설치 방법 hpms.hdec.co.kr/m 접속→Mobile HPMS 다운로드

•통근버스시스템(뉴 오토버스 시스템)

통근버스 통합 시스템. 통근버스의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림존 진입메시지를 통해 미리 탑승 준비를 할 수 있다.

주요 기능 •노선(정류장) 검색: 노선 검색 후 관심 노선/탑승정류장 설정 가능 •알림존 설정: 설정한 알림존에 차량 진입 시, 등록된 탑승정류장에 차량 도착 시 안내 메시지 수신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뉴 오토버스 시스템' 검색 및 설치

•H유펜퍼몰

당사 임직원을 위한 쇼핑몰로, 명절 또는 기념일 등에 지급된 사이버머니 및 쿠폰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주요 기능 •임직원을 내 '선물몰'을 통해 결혼기념일·생일, 부모님 생일, 복날 선물 쿠폰 사용 가능 •현대Hmail, 동원mail, LG생활건강 등 제휴몰에서도 사이버머니 사용 가능 •현대Hmail에서 그룹사 추가 할인 혜택과 H.Point 적립 및 사용도 가능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H유펜퍼몰' 검색 및 설치

Global Tier One

현대건설은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
“Global Tier One”으로 당당히 도약하겠습니다

2020 경영방침

Great Company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

Great People

- 자기완결
- 실행력
- 선행력

Great Culture

- 실패 용인
- 공유지 제거
- 민첩한 조직

Great Value

- 준법 경영
- 기술 경영
- 부가가치 경영

Great People

- Self-determination
- Executive ability
- Proactive ability

Great Culture

- Tolerance for failures
- Removal of the tragedy of commons
- Agile organization

Great Value

- Compliant management
- Technology management
- Added value management